다산포럼

백척간두 위에 서서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신종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놓여 있다. 첨단 의료기술과 보건 시스템이 2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과연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의 회복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불안하고 암담한 심정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서울 음식점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6% 감소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기간 27.6%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올해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더 강화되었고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손실이 누적 가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1년의 지표는 더 심각한 수위에 이를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혜를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야 할 때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정치'의 진정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정치판의 모습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저급한 의혹과 비방들뿐이다.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이 소모적인 정쟁의 와중에서 과연 희망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백 척이나 되는 높다란 장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롭기 그지없는 형국이다.

"지금이 실로 어떠한 때인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형세가 이미 백척간두(百尺竿頭)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바둑돌을 쌓아 올리고 계란을 포개 놓았다는 말로도 이 위태로움을 비유하기에 부족하다." 국왕 정조가 물러난 신하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내린 글의 한 부분이다. 이처럼 '백척간두'는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하는 성어로, 우리나라의 한문 문장에서 적지 않게 사용되어 왔다. 오늘날의 국어사전에서도 같은 의미로 설명된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백척간두'를 주로 학문 혹은 사업의 성취가 지극히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을 표현하는 성어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높은 곳이 위태롭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백척간두를 위태롭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해 온 것은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다.

물론 '백척간두'를 높은 경지라는 의미로 사용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다. 주희(朱熹)가 진량(陳亮)·공풍(龔豊) 등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미 학문이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내딛듯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 데에서 영향을 받아, 지금의 학문적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할 것을 권면하는 맥락에서 이 말을 쓰곤 했다.

더 이상 오르지 못할 극단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원래 불교에서 온 것이다. 주희는 이 말이 지닌 불교적 색채를 경계하면서도 학문의 진보를 드러내기에 더없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한 것이다.

"백척간두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경지에 오르긴 했어도 진정한 경지는 못 되네. 백척간두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이 몸에 온전해지리라." 당나라 초현대사(招賢大師)의 게송(偈頌)이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나아가려면 장대에서 발을 떼어야 한다. 높디높은 백척간두 위에서 발을 떼는 행위는 그나마 나를 지탱해 주고 있는 유일한 것마저 놓아 버림을 뜻한다. 그 때 비로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끝없이 진보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쌓아 올린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만나 터무니없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에 봉착했다. 참으로 높고도 위태로운 백척간두다. 첨단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21세기에 우리의 보잘것없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의지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아직 가 보지 못한 허공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백척간두다. 이 백척간두 위에서 다시금 희망을 읽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청춘 톡톡

어른들은 모두 꼰대인가?

배주은
동신대 물리치료학과 2년

한때 20대들의 필독서였던 책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2021년 현재 '꼰대 문화'의 상징이 돼 버렸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은 더 이상 덕담이 아니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꼰대의 언어'가 돼 버렸다. 요즘 10대와 20대는 '아프면 환자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도 고생'이라는 말로 4050 부모 세대의 꼰대 문화에 반격하고 있다.

'꼰대'란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이르는 은어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권위적인 사람을 흔히 이렇게 부른다. 또 어른들이 권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학생이나 아랫사람을 훈육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소위 '꼰대질'이라고 표현한다.

꼰대의 유래는 여러 가지의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프랑스어 '콩테'(comte)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프랑스어로 'comte'는 백작, 영주와 같은 지체 높은 귀족을 뜻하는 단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국노 이완용이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을 콩테(백작)라고 부르며, 귀족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런 이완용이 하는 짓거리를 비꼬며 '콩테 짓'이라고 표현했다. '콩테 짓'이 일본식 발음으로 변형되면서 '꼰대'가 됐다는 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꼰대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과하지 않고 때에 맞게 사용했다. 하지만 점점 단어 사용이 빈번해졌고 이제는 본인보다 어른인 사람을 보면 꼰대라고 칭하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하는 쓴 소리는 곧바로 꼰대질이 돼 버리고 있다.

솔직히 인생을 살아온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걱정과 애정 어린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는데, 그 조언들이 그저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런 마음을 꼰대라는 단어 하나로 치부하는 건 옳지 않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살 수 있는가? 본인이 듣기 싫더라도 그 말이 옳은 말이라면 새겨들어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꼰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은 꼰대가 맞다. 현재 젊은 층들이 겪는 고난들이 당신들 세대에서는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듯한 태도, 우리가 겪는 일들을 '그깟 일'로 정의해 버리는 말투를 쓰는 어른들은 꼰대다.

하지만 젊은 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어른들의 말을 무조건 '꼰대질'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들 또한 '젊은 꼰대'일 수밖에 없다.

꼰대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 능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MZ세대가 함께 있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세대 간의 소통이 없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태도가 바로 '꼰대질'인 셈이다.

어른들은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들어주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되, '난 이랬었는데, 너라면 또 다를 수도 있지'와 같은 대답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을 수 있다. 외롭긴 하지만 구속받기 싫을 수 있다. 초등학생이 명품을 살 수 있다. 해봤지만 모를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두면 된다. 공감은 '내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이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공감의 시작점이다.

각 세대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모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사회가 되면 꼰대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 고

친환경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해야

박영길
영암 국유림관리소장

지금도 강원도 삼척 지방에는 옛날 큰 소나무를 베어 도끼로 다듬고 운반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 부르던 '목도꾼 소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나무를 운반하면서 부르던 이 노동요는 소리꾼의 선창에 따라 나머지는 후창을 하면서 큰 나무를 오로지 어깨에 메고 인력으로 운반했다.

"여러분네 일심동역 앉았다가 일어서며 고부랑곱신 당겨 주오. 낭그(나무)는 크고 사람은 적다. 엿차소리 낭기(나무)간다. 마읍골에 낭기간다. 한치두치 지나가도 태산준령 넘어간다." "허여차(허여) 허여차(허여) 허여헝(허여) 허여헝(허여) 어 놓고(여 놓고) 허이 요(허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목도꾼들의 애환이 느껴진다. 목도는 보통 길이가 2m, 직경이 12㎝ 정도되는 나무를 깎아 목도채를 만들어 사람의 힘으로 나무를 목도줄에 걸어 양쪽에서 메고 옮기는 방법이다. 체격이 비슷한 목도꾼 두 명씩 네 명이 두 개 조를 이루어 통나무의 앞뒤에서 메어 옮기는 작업으로 목도질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도 소리'를 했다. 도로도 없는 산에서 무거운 나무를 메고 내려온다는 것은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이다.

이렇게 운반한 나무는 다시 떼를 만들어 물길을 이용해 위험한 수로로 이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 때 '떼돈 번다'고 하는데 떼는 목욕탕 세신(洗身)사들이 때를 밀어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니라, 뗏목을 만들어 나무를 이동하는 일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운반이 무사하게 완료되기만 하면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이동한 목재는 한양 궁궐의 기둥으로 쓰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물을 짓는 핵심 목재로 활용되었다. 도로가 없는 산꼭대기에서 목도로 나무를 끌어내리는 어려움과 수로를 이용한 위험한 목재 운반은 지금은 인력이 없어 어려운 형편이다.

현대 사회에서 목재는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종이, 가구용품, 표고자목, 펠릿 연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생필품이다. 우리나라 목재 자급율이 16%에 그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목재 수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목재 생산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목도나 수로 운반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목 생산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임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임업 선진국에 비해 임도나 임목 생산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얼마 전 완도 생일도에 다녀왔다. 임도가 산을 가로질러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었다.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도 애용하고 있었다. 주변에 조경수를 많이 심고 경관이 좋은 곳에는 전망대나 쉼터를 만들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특색 있게 활용하고 있었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역할, 마을을 이어주는 도로 역할뿐만 아니라 산악마라톤·산악승마·산악스키 등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산불 진화 시 현장 진입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때로는 산불의 확산을 막는 방화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 전 세계적인 관심은 탄소중립과 친환경적인 산림 사업이다. 지금처럼 농촌 인구가 줄고 특히 산림 사업을 할 만한 젊은 인력이 없는 시기에 친환경적인 임업 경영을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 적은 임업 기계 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비가 산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도 확대와 임업 기계화가 빨리 이루어져 친환경적인 산림경영과 목재 생산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社說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일 대책 절실하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달 말 현재 광주가 9만 3534명, 전남은 28만 4613명으로 모두 38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6만 8340명에서 매년 10%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새로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을 찾는 고령자들도 적지 않다.

자연스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6년 694건이었던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고, 전남에서도 2000건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워 사고가 났을 경우 치명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여기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보상제도도 도입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의 자진 반납 건수도 지난해 4154건에서 올 들어 2704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운전 제한보다 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통표지판의 글씨를 키우고, 교차로의 시야를 개선해 안전 운전을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택시·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확충을 서둘러 고령자의 이동권부터 확보해 줘야 할 것이다.

대장동·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하는 게 맞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두 가지 빅이슈가 정치권을 내내 흔들고 있다. 두 사건은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651억 원대 배임 행위에 관리·감독권을 가진 성남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수사는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더 지지부진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쌍특검론'을 들고 나왔다. 쌍특검은 국민적 의혹만 키우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최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후 특검을 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가 모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여야는 특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행 상설 특검을 활용하면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특검 추천과 선임 및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이 충돌할 겨우 넉 달을 넘겨 대선이 끝난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년 2월 13일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 모두 특검 수용 의사만 밝힌 채 시간을 질질 끌다가 대선 후에야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無等鼓

이낙연 역할론

국민의힘이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 체제를 구성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동안 진영을 넘나들며 선거 사령탑을 맡아 몇 차례 승리를 이끄는 등 화려한 이력을 쌓아 왔다. 그의 별명이 '여의도 차르(러시아 황제)'라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 방향 설정에 나선다.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냈던 김한길 전 의원도 선대위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아 중도 및 외연 확장에 나선다.

청년 바람을 일으킨 국민의힘 사령탑 이준석 대표 역시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20~30세대의 지지를 책임진다. 이들이 각자의 개성을 뛰어넘어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적 합(合)을 맞춘다면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실상 '드림팀'이 될 전망이다.

반면 지난 2일 원팀의 기치 아래 169명 소속 의원 전체를 포함하는 '공룡 선대위'를 출범시켰던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의 전권을 위임했다. 출범 한 달도 못 돼 선대위가 사실상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 이 같은 극약 처방의 배경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선대위가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대선 패배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권의 위기 국면이 계속되면서 '이낙연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애매한 당헌·당규로 결선투표가 좌절돼 대선 티켓을 놓친 이 전 대표의 헌신으로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은 공감에 움직이고 공감은 헌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물론 쓰라린 패배를 맛본 이전 대표에게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정권 재창출 깃발을 들고 시대를 위한 헌신에 나서야 민주당 의원들의 하방(下放)에도, 선대위의 쇄신에도, 진정성이 실릴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광주·전남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의 헌신은 대선 승패를 떠나 한국 정치와 호남 정치의 품격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지러운 대선 국면에서 신선한 감동을 가져올 그의 결단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2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